

SK, 중국사업 기술경쟁력 제고

Beijing서 현지인 대상 기술교육 ...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도 마련

SK가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사업장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SK는 3월7일부터 3일간 자사 기술원 특수제품 랩(Lab) 주관으로 Beijing에 위치한 PMA(고분자개질아스팔트) 합작공장 사장과 공장장, 운전·품질 관리원 등 18명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SK 관계자는 “중국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며 “합작공장 인력들의 공장 운전 및 품질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작기업간 업무체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K 기술원 특수제품 랩 관계자는 “기술인력 뿐만 아니라 지사, 대리점 및 합작공장 영업인력을 위한 마케팅 관련 맞춤형 프로그램도 마련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3/24>